‘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한국부동산원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글 윤혜원 **사진** 박기현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발전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달려온 지 약 50년. 안전관리부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공시·통계 업무와 다양한 시장관리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도시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울, 충청, 호남, 부산·경남 등 총 7개의 지역본부 아래 30개의 지사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직과 현장직의 구분 없이 대부분 종합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업 특성상 현장 조사 시에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 관리를 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경영활동 전반에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안전관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올해 3년 차 신설 부서인 안전관리부는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 그리고 시설관리팀까지 약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작업장은 지사와 그 외 사업소를 합해 43개소에 달한다. 본사에서 모든 작업장을 관리할 수는 없기에 16개의 지사에 안전경영추진단원을 배치했다. 안전경영추진단원은 본사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힘쓰며 위험성평가나 안전활동 등에서 안전관리부를 돕고 있다.

안전관리부 박성화 부장은 아직 경험치를 쌓으며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직원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과 소통하는

박성화 부장은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하는 데에 보람을 느끼며 한국부동산원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고 있다.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까지

안전관리부가 신설되면서 각자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한데 모였다. 박성화 부장과 이진규 대리는 부동산 업무를 하다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다. 안전관리부는 현장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실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 건강증진활동, 현장 위험요소 확인, 시설 보수 등을 진행한다. 전반적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만큼 바뀐 규정과 수준 평가, 현장 작동성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에 문을 두드린 계기였다.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보던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보니 현행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서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시선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만큼 새로운 안전 제도를 정착시키기도 어려웠을 터. 안전관리부는 협회의 자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박성화 부장과 이진규 대리는 협회의 조언이 한국부동산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현행법을 반영한 피드백 덕분에 수준 평가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또, 현장 점검 때 저희와 동행하면서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을 짚어주었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차’ 싶은 부분도 꼼꼼히 봐주셨거든요. 이후에 안전관리부의 방향성을 정할 때도 알려주신 다른 기관 사례를 활용했죠.”

일터에 스며든 안전문화

컨설팅 후 한국부동산원에는 ‘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매달 진행 중이다.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안전문화활동이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캠페인은 바로 안전운전 캠페인으로, 현장 조사 시 차량 이용을 자주 하는 만큼 안전운전의 중요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관리부는 매달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 적재적소에 도움될 활동을 시행 중이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래서 업무용 차량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달았어요. 일정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알림이 울리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부는 현장관리 애플리케이션 출시

를 앞두고 있다. 현장 관리자가 조사해야 할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고, 조사 중 위험요소를 체크 해 다음 담당자가 어떤 부분이 위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쓰러진 직원을 발견한 즉시 CPR을 실시해 무사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동료 직원을 비롯해 더위에 주저앉은 직원을 바로 신고해 안전관리부에서 건강상태를 즉각 파악하도록 알리기도 했다. 일터 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관련해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안전관리부에서 분기별로 지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전 분기에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점검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개선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 다행히 직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개선하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언제나 직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안전관리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안전관리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오늘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진심은 더 나아가 굳건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완성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관리부 박성화 부장

Q. 한국부동산원 안전관리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부는 생긴 지 3년 된 신설 부서로, 차근차근 자리를 잡는 단계입니다. 주요 업무로 현장관리와 시설물관리, 직원들의 건강관리 등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강화,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현장처럼 위험한 현장에 가게 되면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사고날 뻔한 상황까지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통해 앞으로도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부에서 더욱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